

물결 따라 흔들리는 것은 山인가 나의 마음인가

December 30, 2024 | 허윤희 기자

Page 1 of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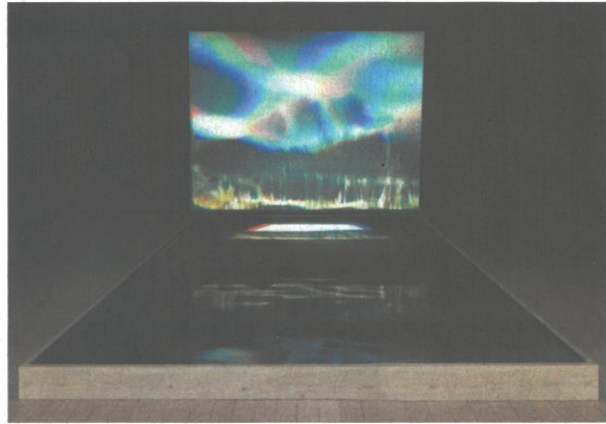
물결 따라 흔들리는 것은 山인가 나의 마음인가

백남준 제자이자 비디오 아트 거장
빌 비올라 사후 국내 첫 개인전
1970년대부터 2006년 작업까지
삶·작품세계 아우른 7점 선보여

칠륙같이 어두운 전시장, 스크린 속에는 낮은 산이 우뚝 솟아 있다. 스크린 밑은 물웅덩이. 전시장의 퍼포머가 손을 휘저어 물이 일렁이면, 정지돼 있던 산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 물결이 세지면 산도 거세게 흔들리고 한번 흔들린 산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잠잠해지며 안정을 되찾는다. 스크린 속 산의 모습은 수면에 투사한 영상이 반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빌 비올라(1951~2024·작은 사진)의 영상 설치 작품 ‘Moving Stillness(움직이는 고요): 마운트 레이니어 1979’다. 미국 워싱턴주 레이니어산의 단단한 이미지를 흐트러뜨린 비올라는 “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전 말했다. 견고하고 불변하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든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빌 비올라의 사후 첫 국내 개인전 ‘Moving Stillness’가 열리고 있다. 1970년대 초기 비디오 작업부터 1995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국관 전시작, 2006년 작업까지 비올라의 삶과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영상 설치 및 영상 작품 7점을 선보인다.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 백남준의 제자이기도 했던 비올라는 비디오라는 매체가 태동하던 1970년대부터 비디오를 다루기 시작했다. 여섯 살 때 호수에 빠져 익사할 뻔했던 그는 “그때 호수 밑바닥에서 올려다본 푸른빛을 잊지 못한다”며 “삼촌이 뒤



국제갤러리
빌 비올라의 영상 설치 작품 ‘Moving Stillness(움직이는 고요): 마운트 레이니어 1979’. 물이 일렁이면 스크린 속 산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들어서 구하려 했는데 나는 아름다운 세상에 머물고 싶어서 삼촌을 계속 밀어냈다”고 말하곤 했다. 그때의 경험에서 출발해 인간의 탄생과 소멸, 의식의 흐름, 자연의 순환 등을 명상적이고 시적인 영상으로 표현했다. 불교의 선종 등 영적 전통과 초월적 세계를 다룬 작업으로 ‘영상의 구도자’라 불렸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차분하게 묵상하기 좋은 전시다. 갤러리 전시장 K1의 2층에서 만나는 ‘The Reflecting Pool(반사하는 연못)’(1977~1979)도 물과 관련된 영상이다. 숲속 연못가에 선 남자가 물에 뛰어들기 위해 도약하는 순간, 허공에 몸을 동그랗게 만 자세 그대로 화면이 정지된다. 남자를 제외한 시간은 그대로 흘러간다. 나뭇가지는 바람에 흔들리고 수면



은 일렁인다. 한참 뒤 물속에서 부활하듯 솟아오른 남자는 천천히 연못 밖으로 나와 숲으로 걸어 들어간다. 어린 시절 호수에 빠져 익사할 뻔한 경험을 녹여 영적인 재탄생을 담아낸 작품이다. 물에 뛰어드는 남자의 행위에 대해 작가는 “한 사람이 자연의 세계로 승화되어 다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며 “일종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기록했다.

비올라가 1995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국관에서 선보인 작품 ‘Interval(간격)’은 관객이 영상을 몸으로 체험하게 만든다. 한쪽에선 샤워실에서 천천히 몸을 닦고 있는 남자가 등장하고, 반대쪽 영상에선 불과 물 같은 이미지가 빠르게 투사된다. 상반된 에너지, 고요하고 격렬한 이미지가 번갈아 전환되고, 갈수록 그 전환 속도가 빨라지다가 폭발적인 절정에 이르러 잠정되며 하나의 시공간으로 통합된다. 내년 1월 26일까지. 무료.

허윤희 기자